

Sunday Morning Video: May 31, 2020

어제 늦은 밤까지,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하였습니다. 최근의 경찰폭력사건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이 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참여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은 폭력의 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시위했던 거리는 제가 매일 아침 뛰는 루트입니다 – Waker 길을 따라서 Loop 로.

오늘 아침에 제 남편 (Ken) 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뛰는 길거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가에 도착하고 보니 모든 다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강을 따라서 모든 다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을 건너는 길이 없었습니다. 또한 다운타운 Waker 길 남쪽으로 방향 시내로 들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올라가면 깜박거리는 정지 표시와 큰 경고음이 납니다. 우리가 산책 할 때 계속해서 다리에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그 경고음은 거대한 시카고 도심의 고층건물들로 이루어진 협곡으로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으라고 알려주는 경고음입니다. 강 북쪽으로 걸어서 저희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산책길에서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보여 주었고 그 경고음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이 시대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주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 문화에 맞는 대중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드러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대공황이후 아직 얼마나 깊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경제의 파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고용 수치가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은 유색인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저임금 노동자들) 의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더 높은 사망율이 아닙니다. 종말은 경찰의 총격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

종말은 이 모든 것들 – 그들이 겪는 많은 고통과 죽음과 상실- 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불평등과 인종차별과 빈곤과 빈약한 건강보험제도가 보여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란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이라면 우리는 드러난 일들을 보고 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일들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 북쪽을 산책 하면서 버스 정류소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버스나 전철이 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여자는 강다리가 올라간 거리에서 대략 50피트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지 않고 있었지만 그분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분은 너무 피곤해서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앉아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질

문은: 우리가 종말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글썄요, 눈을 감고 앉아서 지난 몇달 동안 그리고 지난 몇일 동안 우리가 본 것을 못 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 대한 환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미국,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고 추구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방식으로 모두를 위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누어진 양쪽 진영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과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새로운 현실로 직시하며 살아가고 일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음과 함께 들어올려진 다리의 벌어진 간격을 보며 저는 누가 다리의 연결 역할을 할지 생각해봅니다. 누가 과연 연결다리가 되시려는지요? 누가 연결다리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입니까?

나 일까요?

우리 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May it be so.)